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2호 [부록 제22994호] 주제 99 (2010)년 2월 11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 온 나라의 대경사

선군조선에 또 하나의 사변이 려졌다. 우리 나라 굴지의 종합적 대화학기인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러져 생산을 시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거듭 찾으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 올해에 비날론공장이 새롭게 일떠서 생산을 시작한다는 온 나라의 대경사라고 하시면서 불굴의 투쟁으로 오늘의 이 기쁨을 안아온 기업소로동계급의 수고를 거듭 높이 치하하시었다.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지금 주체적 유인 질 좋은 비날론을 폭포처럼 쏟아내며 각종 화학제품들이 팽팡 생산되고있다. 이것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줄 조국청사와 근로자들의 조성과 결실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사건으로,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인민의 모든 리상을 꽃피워나가는 선군조선의 강성변영의 기상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

지금 커다란 민족적경사에 접한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 신심과 락판에 넘쳐있으며 총공세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대변혁의 해로 빛내어갈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신심과 락판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비날론공정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여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적을 창조한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끝없이 밝은 미래를 펼쳐놓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비날론대향생선의 시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인민생활향상사업의 일환으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시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비날론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도록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고 **《모든것을 비날론공정건설에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어 비날론공정건설의 초행길을 개척하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나라의 주체적 인민생활향상사업의 방향과 방향을 환히 밝혀주시고 걸음걸음이 짙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오늘의 자랑찬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비날론공정현대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주체적 유인 쏟아져 나오게 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인민생활향상사업과 업적은 진리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라는것이 다시금 뚜렷이 확증되었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제부로 물려주고 끝없이 빛내어나갈 때 강성대국건설에서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될것이며 우리의 조국과 혁명의 역사는 영원히 수령님의 력사로 줄기차게 흐를것이다.

비날론대향생선의 시작은 우리 식의 창조본래로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파강히 돌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펼친 거대한 사변이다.

오늘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사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 전진하고있다. 우리에게 자기 힘밖에 믿을것이 없으며 자주적대국을 확고히 세우고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건설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의 근본원천이 있다.

이번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정복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의 CNC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소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켰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하지 않는자들에게 조선사람의 본태를 보여주고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제재압살책동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파시한 여기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이룩한 승리의 거대한 의의가 있다.

우리의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이 땅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와 방해책동도, 그 어떤 힘도 자주의 기치높이 우리 식의 창조본래로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비날론대향생선의 시작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대단한 성과이다.

이번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성을 격정에 넘쳐 오매도록 보고 또 보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비날론천을 보내줄수 있게 되었고,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드디어 풀어 드릴수 있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올해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해이다.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고 당창건 65돐을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혁명적경사로 빛내어가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현대적으로 꾸러지고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을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키며 특히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목화솜이나 양털에 못지 않은 훌륭한 방직원료인 비날론을 폭포처럼 쏟아내며 인민들의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 시대의 기념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생사기로 놓여있던 우리의 비날론공업을 세상에 보란듯이 회한하게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적 인민생활향상사업과 강성대국건설사에 찬연히 빛날것이다.

온 나라를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는 오늘의 대경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실현하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려고 모은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색과 불변 불류의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최선과학기술로 장비하고 대규모생산능력을 갖춘 대화학기로서 새롭게 일떠세우실 용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오시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계지담게 대화학기지를 더 훌륭하고 요란하게 일떠세우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며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지혜와 열정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파강히 돌진하는 배심을 이끌어주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강렬한 경제선동투쟁으로 비날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분출시키도록 하시고 비범한 예지로 10년을 5년으로, 5년을 2년으로 앞당겨 현대화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통룡별에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새차게 휘몰아치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삼복철의 무더위를 헤치시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보증을 틀어쥐고나가도록 일깨워주시고 한해에도 두차례에 걸쳐 현지지도를 하시며 현대화의 1단계공사, 2단계공사의 방향과 방향을 환히 밝혀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바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변 불류의 령도를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백두의 공격정신과 무한대의 애국헌신을 전하는 역사적의 증거자이며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혁명을 전진시키시고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창한 변혁을 일으켜나가는 장군님의 특출한 령도실력을 보여주는 시대의 기념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생사기로 놓여있던 우리의 비날론공업을 세상에 보란듯이 회한하게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적 인민생활향상사업과 강성대국건설사에 찬연히 빛날것이다.

온 나라를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는 오늘의 대경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연열풍을 이룬 비날론로동계급의 열렬의 애국충정과 건원불발의 정신력, 무비의 실천력이 안인오 고귀한 결정체이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현대화과정은 혁명의 수뇌부의 높은 권위를 보장하며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진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장군님의 의도를 결사관철하려는 결사의 신념, 장군님께 하루빨리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불타는 열념은 비날론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역력같이 자리잡은 열화같은 사상감정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길에서 대담무쌍한 선봉투사, 백철불굴의 돌격용사가 되려는 결사의 각오를 지니었기에 기업소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일군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었으며 수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여러대의 생산건물을 새로 일떠세우고 기존생산공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신설을 진행하며 높은 수준의 CNC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대화학기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를 2년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것도, 현행생산능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도 정복산업시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물감-농약기구를 건설하고 비날론중간제품을 가지고 갖가지 제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모든 공정들을 그르히 갖추어놓을수 있는것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새차게 일으킨데 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강령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열렬충정의 인간들이며 자기의 지혜와 탐과 열정이 숭배인 창조물로서 자기 령도자를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향심과 의리가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파시한 수령결사옹위의 진위투사들이다.

비날론로동계급과 같이 수령의 념원을 실현하고 령도자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천만시련도 맛보아내고나가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일으켜나가는 진투력있고 실천력있는 로동계급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더없는 자랑이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려는 또 하나의 경이적인 사변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 최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대적으로 꾸러짐으로써 우리에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우리는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변혁의 해로 되게 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인민의 리상이 빛나게 실현된다는 승리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역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반드시 현실로 꽃피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방식이며 창조방식이다. 어제는 우리 식의 주체형생산체제가 완성되고 굴지의 대야금기 지검이 용을 쓰며 일어서고 오늘은 비날론 폭포가 쏟아지는 경이적인 사변이 편이 펼쳐지는 대고조시대의 자랑찬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실현

이며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대로만 하면 우리 인민이 만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주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과 락판에 넘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계속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걸음도 같이하는 강령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 당이 펼치는 작전과 구상들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높은 생산적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특히 4대선행부문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전력과 석탄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 식량인 동시에 화학공업의 생명선이다. 전력과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을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에서 만가동을 보장하고 만부름을 결수 있도록 필요한 전기와 석탄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높은 혁명적양상을 일으켜 경제건설과 농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민생활과 련관된 모든 부문들에서 면대적인 혁신을 일으켜 더 많은 인민소비품이 팽팡 쏟아지게 하여야 한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강성대국건설시대를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기세드높이 생산을 정상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여 올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려는 당의 현대한 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야 한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투쟁기풍으로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건원불발의 의지력으로 승속은 공장들을 되살려냈을뿐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울으로써 비날론공정의 창시자이시고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었다고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우리는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일관단심 당을 따라 백철불굴의 의지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같이 전해될 귀중한 열매를 안아온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따라배워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우리 식의 화학공업의 생산체제를 완비한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자랑찬 성과는 민족자존의 정신력에 바탕을 두고있다. 우리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미 아니라는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파강히 돌진해나가야 한다. 밝은 자기 땅에 불이 고 눈은 세계를 보며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만들겠다는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모든 전선에서 청담을 돌파해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오늘의 대고조의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2.8비날론로동계급은 제힘을 믿고 펼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실현으로 확증한 자력갱생의 신구자들이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설해주신 비날론공정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펼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처럼 **《자력갱생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들고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시대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사에 또 하나의 역사적사건으로 아로새겨질 오늘의 대경사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강성대국의 승리가 지척에 있다는 크나큰 환희가 끓어넘치게 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부강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겨 줄 애국헌신의 한마음으로 불타게 하고있다.

모두다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환희의 축포성이 터져오를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돌격으로!



인민생활향상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은 우리 나라 굴지의 화학공업기지 2.8비날론련합기업소

본사기자 김충훈 찍음

정론

비 날 론 삼 천 리 가 펼 쳐 진 다

나라의 대경사, 민족의 대경사가 있다. 사회주의 승리의 가슴후련한 소식이 터졌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새로 꾸러진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따라 비날론이 쏟아져나온다!

인공지구위성이 한번에 몇개나 날아오른것 같은 놀라운 소식이 동해의 물결을 타고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있다.

조선에서 진짜 비날론이 일어서는가들의 후에 차서 쳐다보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후려갈치며 우리의 비날론지구가 자기의 새 모습을 드러냈다.

2009년이 저물어가는 시각 달리는 열차에서 온 나라 인민에게 보내주실 새해공통사실에 《다시한번 경영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라고 진하게 써 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환히 내다보신 2010년의 눈부신 새 화풍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심장에 안고 있고 초강대강행군길을 걸으신 우리 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바꾼 비날론의 새로운 탄생을 격정넘치고 인민을 위하여 부투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모습에 눈곱졌는다.

오늘의 이 크나큰 경사를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가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 천만심장에 넘치고 우리 장군님과 꼭짜지 못할 함께 하며 비날론공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불굴의 투사들에게 보내는 온 나라 인민의 축하의 마음 하늘따지 끝까지 차고넘친다.

1

비날론이 일어섰다. 비날론대문이 활짝 열렸다.

우리 얼마나 마음속에 바라고 기다리던 소식인가.

인민생활의 웃음꽃바다를 총출필렬 펼쳐 비날론대문이 열렸기다.

비날론이란 말이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울려오고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비날론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대가 진짜로 눈앞에 온것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생활문제를 하루빨리 풀어 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드디어 비날론대문이 열렸다. 위엄없이 쏟아져내리는 비날론을 가슴에 안고 만세를 부르는 눈물의 바다우에 우리가 서있다. 내 나라의 비날론을 한움큼 손에 드니 가슴미여져 눈물 솟아진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날론인가.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서 하얗게 쏟아져내리는 함박눈처럼 포근하고 정갈한 우리의 비날론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노래가 절로 터져나오게 하는 우리의 비날론이다. 력사의 폭풍우를 헤쳐 우리를 이끌어온 주체사상의 뿌리에서 억척에 뿔어져오른 우리의 비날론이다. 내 나라, 제일의 자부심이 그대로 비날론되고 우리가 제일이라는 자존심이 그대로 비날론으로 펼쳐졌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지도 자욱을 따라 2. 8비날론련합기업소 구내길을 걸고있다.

어제날의 모습과는 판판 다른 현대적인 《비날론대문》이다.

동해기슭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툼툼한 석회돌과 은백색의 합성타입이 하늘높이 솟아있는 비날론공정의 웅장한 자태가 언저른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비날론광야이다. 그물망처럼 뻗어간 배관들을 한줄로 이어놓으면 지구를 두바퀴 돌만 한 길이가 된다. 비날론공정의 방대한 세계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반년전의 오렌색을 자랑하는 내 조국의 명숙재주가 비날론으로 만들어지는 화복에 가슴 흐뭇해진다.

우리 조국의 무진장한 자원이던 석회석과 무연탄이 석회로에 쏘아지고 석회에서 만들어진 생석회와 카바이드로에 옮겨지는 과정, 금방 사들여주듯 붉은 흙물이 출렁이는 카바이드로에서 만들어진 카바이드덩이들이 천정기중기에 실려 발생기에 들어가 아세틸렌가스로 되는 과정, 여러가지 촉매에 따라 묘술을 부리는 생산공정들은 신비로운 화학의 세계를 펼쳐준다.

금방 가스로 되었던 물질이 20. 8℃의 낮은 온도에서 끓는 액체가 되는가 하면 금시가지 액체였던 물질이 산화함에 들어가더니 초산이 되어 나오고 초산에 또다시 가스를 합치면 초산비닐이 되는 비날론생산공정... 항상-중합공정을 거쳐 증기속에서 액체로 되었던 알데히드가 용고액속에 정제되는 수천개의 조밀한 《사와구멍》으로 새하얀 극수발처럼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비날론이다.

16년만에 쏟아져나온 새 비날론이 눈굽을 적시어준다.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헤쳐넘으며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보여준 우리의 비날론이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더욱더 뜨겁게 불타고있던 그 이름 비날론이여, 우리 오늘날 기쁨의 눈물방울 가슴에 품고 품었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너와 함께 속삭인다.

인류가 걸어온 화학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무기화학을 거쳐 유기화학으로, 유기화학에서 또다시 고분자유기화학으로 돌아오며 무한히 앞으로 무진장한 행복의 열매를 안겨주는 거대공업으로 발전해온 화학공업의 력사에서 비날론처럼 조국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피뚫어주는 고귀한 재부는 세상에 없다.

내 나라의 향기가 가득 풍기는 《비날론》이라는 그 이름.

세상에 처음 나온 비날론의 이름을 학명 그대로 폴리비닐알콜계수라고 부르려고 있을 때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귀중한 과학기술적재부를 어찌 다른 나라 말로 부르겠는가 하시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명냥이할 때 날실, 들실이라고 말하던것을 유례로 하여 우리 맛에 나게 《비날론》이라고 부르자고 궁지높이 선인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우리의 귀전을 울린다.

비날론폭포속에서 흘러가던 좋은 날들이다. 개단지 못하였던 비날론의 소중한 고난의 길을 걸으며 우리 다시 앞둔다.

비날론이라는 말을 아침저녁 외우던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큰것이었는가, 비날론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존엄이 얼마나 귀중한것이었는가, 고난의 그 길에서 우리모두 소중한 깨닫지 않았던가.

어제날 비날론공업에 대한 표상으로 오늘의 비날론공업을 말할수 없다.

완전히 새로운 풍경의 비날론대도시가 솟아올랐다.

CNC노래 넘치는 첨단화학공업기지가 태어났기다.

비날론발명국인 조선을 비날론대국으로 만드는 기적이다.

생석회, 카바이드, 아세틸렌공정을 비롯한 수십개의 기본공정들과 촉매생산, 금속, 펌동, 증기생산공정을 비롯한 보조생산공정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공정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비날론을 위하여 움직인다.

선군시대 비날론공정의 창조자들은 수십개나 되는 어제날 공정을 압축하여 새로운 현대적인 공정으로 전환시켰었으니 비날론생산의 심장부인 합성, 중합공정을 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백수천회의 화학반응단계들로 복잡하게 엉켜져있고 수천개에 달하는 조종판추출과 비날론대문이 콤퓨터에 의한 생산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기업소의 모든 생산공정이 100%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종된다.

생산공정의 콤퓨터화가 완전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비날론공정의 CNC화를 당당히 선언하게 된것이다.

비날론공업을 통하여 나오는 재부는 수백개지이다.

비날론생산과정에 가치를 치며 나오는 수백가지의 화학제품들은 나라의 큰 경영공정들과 지방산업공정들을 돌릴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 습니다. 장군님께서 앞길을 비추시던 오직 그 길만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고난에 걸은 그 땅에서 비날론로동제국에서 사는 우리의 긍지 얼마나 큰가.

비날론과 카바이드, 가정소다와 열화비닐은 말할것도 없고 물감, 농약, 열산, 액체연소, 표백분, 중조, 가열바리움, 열화합시움, 초산, 알콜, 기초제, 초산비닐, 폴리비닐알콜을 비롯한 420여종의 화학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무기화학과 유기화학, 정밀유기화학과 고분자화학의 신비로운 세계를 통틀어 안고있는 비날론지구에서는 현대적인 농약생산이야기도 꽃피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보지 못하였던 분산제에 대한 자랑도 전해졌다.

어제날의 산성, 염기성물감에 종지부를 찍고 립자가 가장 작은 A급에 속하는 세계적으로 제일 앞선 수준에 있는 물감이 생산되는 화환한 현실이 비날론 지구에 펼쳐졌으니 얼마나 크나큰 경사인가.

한정보에 몇백배를 주면 곱칠 많은 열매가 열리게 하는 농약들이 크지 않은 생산면적안에서 쏟아져나오는것, 이것 또한 얼마나 위대한 경사인가.

경공전선기, 농업전선기 비날론지구를 바라보며 병실병실 웃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의 천만가지 복이 비날론 지구와 한줄기로 연결되어있지 않는다. 그 웃을 입에도 자기의 목에 맞는것으로, 음식을 먹어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것으로, 마음도 편하게 자기것으로 먹고 있고, 사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리상과 자존심의 높이 보여주며 비날론지구가 세계를 굽어본다.

누구나 결박하게 바란것이지만 억대의 투자료에도 얻다주지 못한 방대한 화학공업의 재생이 이렇게도 빨리 눈앞에 오리라 상상할수 있었는가.

주체철의 기둥에 비날론꽃을 임히는 환희로운 사변이 터지고 선군의 모든 승리가 인민생활과 시시각각으로 가까와지고 있는 오늘날 가슴번한 현실은 자주의 대는 진리이고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상이 안아온 고귀한 승리이다.

비날론을 만드는 붉은 돌를 쪼는 소리가 장대하게 메아리쳐오는 동해의 기슭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리상이 꿈같은 현실로 꽃피고있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향하여 목청껏 웨치고있다.

조국이여, 사회주의 네 품에서 꽃피는 오늘날의 기적은 하늘이 준것인가, 땅이 준것인가, 우리도 놀랄고 세계도 놀라는 비날론의 새로운 탄생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

숨쉬고 말하는 생명체와도 같이 비날론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생명체처럼 기쁨과 슬픔과 시련의 언덕을 우리와 함께 넘어온 비날론은 력사앞에 자기가 걸은 길을 소리없이 기록하고 가르쳐준다.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의 재부이며 우리 조국의 자랑이고 존엄인 비날론의 운명을 건져주시분, 고난의 눈보라속에서 피눈물 삼키며 몸부림치던 비날론로동제국을 품에 안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비날론지구의 새 모습을 인민에게 안겨 주신 전설적영웅의 숭고한 영상이 우리 눈앞에 어려온다.

내 나라의 화학공업에 한몫비칠 애국의 열정에 끓는 한 과학자의 심장에 원유가 아니라 우리의 무진장한 자원으로 섬유를 만들어낼 원대한 꿈을 안겨주시고 비날론공장건설은 1211고지전투와 같다고 하시던 비날론의 대도시를 일떠세워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당력과 배짱을 고난의 길에서 폐허가 되었던 비날론공업을 다시 일떠세워주시 절세의 애국가 김정일장군님.

그이의 심장에는 비날론이라는 이름이 조선이라는 이름처럼 간직되어 있었다.

그이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타고달리신 인민행렬차와 비날론지구가 하나의 피줄기로 연결되어 있었다.

위대한 그이의 뇌리에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신 훌륭한 우리 인민과 비날론이 하나의 화복속에 비쳐지고 있었다.

고난의 파도가 동해기슭에서 칠씩일 때면 립수에 대한 증오에 몸부림치던 비날론의 웨침과도 그이의 심장어의 총력을 펴망 두드려 잠 못 드신 밤 일정한 스치는 바람결도 어버이수령님의 옷자락처럼 느껴지는 비날론지구에서 시련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우리 장군님 피눈물속에 더욱더 뜨겁게 불타보신 비날론이여,

피할수 없는 재난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기다리니 소리없이 서있는 비날론지구를 조용히 돌아보신 날 장군님의 심장은 조국을 향하여, 인민을 향하여, 비날론로동제국을 향하여 이렇게 준철하게 웨치지 않았다.

일어서자, 명에서 다시 시작할지라도 온 세상이 보란듯이 더 훌륭하게!

눈물이버린 합성타입에 고개를 두렵게 매달리고 뒤편 현장에서는 소영과 장군이 때 없이 들리던 그날의 비날론지구.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심장은 흥인지 날리는 비날론지구의 땅에있는 비날론전투호르는 뜨거운 승결을 들고있었다.

장군님, 허리띠를 열번 조여맨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 습니다. 장군님께서 앞길을 비추시던 오직 그 길만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고난에 걸은 그 땅에서 비날론로동제국에서 사는 우리의 긍지 얼마나 큰가.

비날론과 카바이드, 가정소다와 열화비닐은 말할것도 없고 물감, 농약, 열산, 액체연소, 표백분, 중조, 가열바리움, 열화합시움, 초산, 알콜, 기초제, 초산비닐, 폴리비닐알콜을 비롯한 420여종의 화학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무기화학과 유기화학, 정밀유기화학과 고분자화학의 신비로운 세계를 통틀어 안고있는 비날론지구에서는 현대적인 농약생산이야기도 꽃피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보지 못하였던 분산제에 대한 자랑도 전해졌다.

어제날의 산성, 염기성물감에 종지부를 찍고 립자가 가장 작은 A급에 속하는 세계적으로 제일 앞선 수준에 있는 물감이 생산되는 화환한 현실이 비날론 지구에 펼쳐졌으니 얼마나 크나큰 경사인가.

한정보에 몇백배를 주면 곱칠 많은 열매가 열리게 하는 농약들이 크지 않은 생산면적안에서 쏟아져나오는것, 이것 또한 얼마나 위대한 경사인가.

경공전선기, 농업전선기 비날론지구를 바라보며 병실병실 웃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의 천만가지 복이 비날론 지구와 한줄기로 연결되어있지 않는다. 그 웃을 입에도 자기의 목에 맞는것으로, 음식을 먹어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것으로, 마음도 편하게 자기것으로 먹고 있고, 사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리상과 자존심의 높이 보여주며 비날론지구가 세계를 굽어본다.

누구나 결박하게 바란것이지만 억대의 투자료에도 얻다주지 못한 방대한 화학공업의 재생이 이렇게도 빨리 눈앞에 오리라 상상할수 있었는가.

주체철의 기둥에 비날론꽃을 임히는 환희로운 사변이 터지고 선군의 모든 승리가 인민생활과 시시각각으로 가까와지고 있는 오늘날 가슴번한 현실은 자주의 대는 진리이고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상이 안아온 고귀한 승리이다.

비날론을 만드는 붉은 돌를 쪼는 소리가 장대하게 메아리쳐오는 동해의 기슭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리상이 꿈같은 현실로 꽃피고있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향하여 목청껏 웨치고있다.

조국이여, 사회주의 네 품에서 꽃피는 오늘날의 기적은 하늘이 준것인가, 땅이 준것인가, 우리도 놀랄고 세계도 놀라는 비날론의 새로운 탄생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배의 속도, 3배의 기적이였다.

비날론로동제국은 첫번째와 두번째의 기적을 창조하는것만으로도 조국과 인민앞에 자기가 한 일을 멋뻑이 자랑할수 있는 시대의 영웅들이였다.

하지만 침단을 돌파하라는 최고사령부의 나팔소리가 장엄하게 울리는 오늘날, 비날론로동제국이 없이 선군시대 비날론공업에 대하여 감히 입에 올릴수 없다는것이 비날론정신창조자들의 신념과 의지였다.

우리의 두뇌로 화학공업의 첨단고지를 점령하자!

CNC화를 위한 전투현장에는 이런 글발이 나불였다.

우리의 기술개발을 남에게 의지하는것은 우리의 머리를 남에게 맡기는것이다. 비날론의 침단을 우리 두뇌로 돌파하러가는 조선지식인의 자존심이 심장을 피뚫이며 수십명의 두뇌진들이 프로그램전투장에서 낮과 밤을 이어나가고있었다. 평균 나이 30대 초반인 그들은 거의나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거친 사람들이였다.

하나의 화학공정을 위하여 수십만개의 프로그램을 짜고 또 짜면서 그들이 헤쳐나간 침단으로의 길은 우리는 비날론발명국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말씀을 걸음걸음 새기면서 한치한치 몰아오른 길, 비날론로동제국의 정진은 살아있다고 하신 장군님의 불명언같은 믿음을 심장에 안고 쉬임없이 돌진해오른 길이었다.

피어 화학공업에서의 새로운 조종제계가 완성되었다.

화학공업분야에서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화학공업의 기술을 어디서나 마음먹는데로 활용할수 있는 귀중한 원천 프로그램이 완성되니 우리는 비날론이 화복의 마음을 진강해냈다.

수백수천의 조종판추와 밸브들로 움직이던 비날론공업지구의 생산공정을 콤퓨터로 움직이게 된 력사적인 시각에 조종공들의 마음은 진강해냈다.

수많은 탐들과 배관안에서 어떤 화학반응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볼수 없는 복잡한 공정들을 자기마한 콤퓨터로 조종한다고 생각하니 파이프라는 영원한 현실앞에서도 자신을 믿을수가 없었던것이다.

마우스를 왼 손이 떨리고있었다. 《못하겠습시다!》

지도모르게 벌떡 일어서는 조종공의 목소리였다.

그렇게도 멧심함을 지새우며 조종기술에 숙련하면서 자신있다고 대답하던 청년이었다. 비날론공정의 새 조종기술이 성공인가 아닌가를 자기 손으로 증명하는 력사의 순간에 울려나온 로동제국의 랑심의 목소리.

《은 나라가 보는데... 전세계가 보는데... 폭발하면 어찌 됩니까!》

성공을 앞둔 초조를 다루는 그 시각에 울린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탐들과 판들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고 거대한 창조적 세계를 손에 누르려는 력사의 순간일때 아무리 큰 심장을 가졌나 할수록 어찌 마음조이지 않을수 있랴.

콤퓨터앞에 걸걸이 들리던 일꾼들도 눈굽을 찍고 비날론공정의 CNC화를 실현한 줄인공들도 소리없이 눈물을 닦았다.

세개의 탄생은 인간의 마음속에 이토록 잊을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되는 한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을 새겨준것이다.

《장군님! 비날론은... 앞으로... 나갑니다!》

지도모르게 터져나온 눈물의 웨침과 함께 조종공은 마우스를 힘있게 눌렀다.

새로운 비날론생산공정이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거창한 비날론공정이 완전히 프로그램으로 조종되는 꿈과 같은 현실이 흘러가고있었다. 성공이라는 말로써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가슴 벅찬 승리가였고 위대한 사변이였다.

사람들이여, 삼가 귀 기울여라.

선군조선의 주체의 권력을 파시하는 비날론도시에 들이서서 떠난 내 나라의 하늘 밑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합성타입이 무엇이 들려오는가.

피뻘에 절은 발자국자리가 소리없이 묻혀있는 비날론지구의 지심깊이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심장의 벽을 뚫고 두드려 주는것인가.

승리의 길을 담은것은 역만감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순결한 마음이다. 행복과 번영의 대문을 여는것은 신비한 공식이 아니라 하나의 뜻으로 뭉쳐진 혼연일체의 력이어야 한다.

우리 장군님과 끝까지 뜻을 같이할 혼연일체의 승결로 맥박치는 자주의 땅, 창조적 땅, 변이 난 비날론도시를 뚫으면서 우리 장군님 얼마나 회월에 넘치였던가.

몇몇몇가지만 해도 《전투복구건설》에 대하여 말하면 비날론지구, 《우리는 립터에서 시작하였네》를 눈물의 함창으로 터치던 비날론로동제국을 승리의자의 크나큰 희열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앞에 정렬하여 선것이다.

장군님, 비날론이 다시 살아났습시다.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마저 사라져가던 비날론공장이 장군님덕분에 천지개벽되었다고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정중히 이터이신 지배인의 목소리.

천지개벽되었던 말이지!... 조용히 위우시는 장군님의 음성도 뜨겁게 젖어있었다.

비날론중간체생산공정보수를 끝내고 지금은 농약, 물감생산공정을 꾸리는데는 위대한 인간, 강철의 명장, 절세의 애국자의 순결한 마음처럼 깨끗하고 정갈한 비날론이 야전지에 실린 전설같은

빅장을 불러야지!

옛날 리승기선생때 돌리던 공정도 다 살리고 최첨단수준의 정밀유기합성공정도 완성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비날론지구에 메아리쳐 울려왔다.

위대한 애국의 심장만이 떠돌수 있는 비날론지구의 새 모습을 눈물없이 어찌 바라볼수 있랴.

하늘높이 솟아오른 눈부신 저 합성타입에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초강대강행군길을 비날론지구와 하나로 잇고계신 우리 장군님의 열렬의 애국정신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보여주겠소?

새로운 과업을 주시고 떠나시던 바람부는 그 길을 따라 떠약별을 안으시고 또다시 달려오는 어버이장군님의 다정한 그물오십에 어깨를 짊어 주고 대답하는 지배인의 목소리는 얼마나 자신심에 넘쳤는가.

장군님, 정밀유기합성공정이 새로 창설되었습니다!

무기화학공업, 유기화학공업, 고분자화학공업과 함께 정밀유기합성공업이 새로 창설됨으로써 종합적인 화학기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는 기쁨 넘친 보고를 들으시며 현장으로 향하신 우리의 장군님.

초산발착기 고를 썰러 여기에는 들어가실수 없다고 충구스럽게 말씀드리는 일꾼의 등을 떠밀치고 그렇다면 극수집에 들어가신덴고 들어가면 되지 않는가고 말씀하신 위대한 어버이.

화학이라는것은 역시 마술과도 같은것이라고, 저것 보라, 여기에다 뭘 붙이면 뭘이 되고 거기에 무엇을 붙이면 또 다른것이 된다고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화학의 신비로운 힘에 대하여 통속적으로 표현하시던 장군님의 그 환산의 미소.

대만해, 대만해, 아무것도 다 다 제것이여야 돼, 비날론상표가 붙은 우리것이 얼마나 좋은가!

《2. 8비날론련합기업소》라는 상표가 찍힌 포장제품이 그러도 소중하여 써야 되고 또 쓸어보시던 장군님의 희열의 샘이, 우리 인민이 어서빨리 비날론력을 입게 하시려는 절같은 사랑으로 가득한 위대한 창조적 세계를 따라 16년만에 비날론이 다시 쏟아지는 경사의 날, 기쁨의 날이 찾아왔다.

16년만에 드디어 쏟아지는 비날론의 새 모습을 그렇게 쉽게 보실수는 없으신 듯 시간보다 앞서 현장을 찾으신 우리의 장군님.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일본일조차 침범처럼 귀찮았던것만 그 귀중한 시간을 비날론생산자들과 함께 계산 장군님의 그 심중에 얼마나 많은것이 실려있었는가.

첫 극수발착기 조종심지가 뿔어져나오는 비날론, 비날론... 장군님, 비날론이 나왔습니다!

일꾼들이 기쁨에 넘쳐 말씀드리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 맞이하신 그 순간 아무 말도없고도 있었으니 우리 장군님, 눈발같이 비날론을 보고 또 보시며 눈굽 축축히 적시 우리 장군님.

눈멀이처럼 하얀 비날론솜을 손에 드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햇빛같은 미소를 그려 보시었다.

우리의 비날론이 다시 태어났다고 뜨거운 축하를 보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을 귀전에 들으시었다.

사람들이여, 우리는 다같이 이 땅에 태어나 내 나라의 물과 공기를 마시는 국민들이다. 우리 자신이 턱을 입을 비날론이 천만 비날론이 쏟아져나오는 순간을 누가 이렇게도 뜨겁게, 열렬하게 기다려야 할 수 있었는가.

피뻘이 터져나오는 순간으로 한치한치 다가서는 2. 8의 로동제금과 매일매일의 순간을 함께 계신 우리의 장군님.

비날론이 더 요란히 쏟아져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고 물으시는 장군님께 1시간후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일꾼들의 가슴속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불명이자 솟구쳐올랐다.

장군님, 우리가 비날론을 가득 채워줄 수 없으니 어떻게 될때까지 어찌하여 이런 힘든 걸음을 또 하신것입니까!

금방 비날론을 보시고 떠나시었던 그 길을 또다시 둘러보시어 비날론생산현장을 찾아오시었으니 장군님을 맞이하는 장을 뚫어주시어 터져나온것은 눈물이었던가, 합성이었던가.

얼굴마다 눈물의 웨침 가득 고인 일꾼들과 로동제금을 뜨겁게 바라보시면서 이제 버리는 공장의 대문을 열어놓으라고, 내가 아무때나 들어와보게 대문을 활짝 열으시라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절절하게 터치신 말씀이여.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승리요! '무엇을! 나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습시다. 이 비날론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주체의 비날론입니다. 금수산기념공원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비날론솜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로동제금이 만들어낸 새 비날론솜을 수령님께 가져 가고 갑시다! ...

아, 비날론. 우리 장군님 16년만에 다시 태어난 비날론을 야전지에 실으시었다.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을 꽃피우시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러 바치시는 위대한 인간, 강철의 명장, 절세의 애국자의 순결한 마음처럼 깨끗하고 정갈한 비날론이 야전지에 실린 전설같은

사연을 후손만대여, 영원히 조국청사여 아로세기라.

사람들이여, 비날론이 걸어온 길을 후대들에게 옛날처럼 들려줄 때 잊지 말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총직한 혁명전우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아니시라면 비날론의 운명도 달라졌을것이다. 수령님의 평생소원에 그렇게도 충실하신분, 수령님 남기고가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조국번영의 결사전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 같은신 고결한 인간의 품을 떠나 선군시대 비날론의 새 모습을 어찌 생각할수 있랴.

3

민족의 자손만대의 운명을 책임지신 절세의 애국자를 모시어 비날론삼천리가 펼쳐지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왔다.

비날론삼천리! 아침은 빛나와 이 강산 은금에 자원으로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애국가》는 비날론삼천리라든 궁지높은 자랑으로 뜨겁게 이어진다.

최첨단돌과의 포성을 높이 울린 위대한 나라의 조국은 비날론삼천리를 펼쳐갈 아름다운 포부를 안겨준다.

우리가 말하는 비날론삼천리는 우리가 태를 물고 사는 이 땅 끝에서 끝까지 사회주의향기가 넘치는 우리의 오목배파로 가득 채우자는 열렬한 애국심을 말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운 비날론생산공정에서 첫 비날론을 뽑아낸 로동제금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비날론정신의 최고발현이라고 하신 말씀은 깊은 뜻을 담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현대화된 대규모화학공업기지 2.8비날론연합기업소



조선로동계급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 만년재부 창조

2. 8 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비날론 솜과 각종 화학제품들이 쏟아진다

당장전 65돌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일대 공세가 벌어지고있는 혁명 시기에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인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비날론 솜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았으며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날론 솜을 격정적 넘쳐 오도록 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비날론 솜을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고,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올해에 비날론공장이 새롭게 일떠서 생산을 시작한다는 대경사라고 하시면서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펼칠 수 있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된대하여 대단축을 표시하시고 이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정신력과 실천력의 대폭발이 안어진 자랑스런 창조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당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펼쳐나선 2. 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련합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 과학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웅근 하나의 대화합기지를 건설하는 방대한 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공함으로써 전반적인 비날론생산공정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CNC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비날론중간체생산공정마다에서는 각종 기초화학제품들이 팡팡 쏟아지고있으며 수직방직장에서는 주체적 섬유인 질 좋은 비날론이 폭포처럼 쏟아지고있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가 위대한 선군시대의 자랑스런 창조물로 현대적으로 새롭게 일떠섬으로써 기업소는 무기화학제품과 유기화학제품, 고분자화학제품, 정밀유기화학제품을 다 생산하는 종합적인 대화학공업기지로 전변되었으며 비날론은 물론 갖가지 기초화학제품들이 대대적으로 생산되어 나라의 화학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전방이 열리게 되었다.

공업기지의 새로운 탄생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의 로고로 뜨겁게 새겨져있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여러차례 찾아오시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거듭 풀어주시면서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의 결실이며 우리 당에 끊임없이 충직한 비날론로동계급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도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한평생을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의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의 창설자, 개척자이시며 비날론공업발전전략의 갈피마다에는 비날론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전쟁의 불비속에서도 승리의 조국의 레일을 내다달라 비날론연구를 중단없이 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kg의 강재, 한중의 세멘트가 귀중하였던 때에 물소 대규모의 비날론공정건설을 맡아주시고 이 땅에서 비날론공업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었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갈대만이 무성하던 통동벌에 나오시어 비날론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는데 이 《모든것을 비날론공장에 걸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켜 공장건설을 다그쳐 갈대만처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업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비날론속도》가 창조되는 속에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일떠섬 비날론 공장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끊임없이 진행될 능력화공정사를 통해 나라의 대규모화학공업기지로 전변되게 되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잠재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대국을 일떠섬에 필수적인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로고가 어려있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

로 일신시키실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다.

삼복의 무더위와 찬바람부는 겨울철의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서도 최근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개건공사의 단계별목표를 뚜렷이 제시하여주시고 그 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음뿐 아니라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전반적인 개건공사를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 나날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아 수행하여야 할 기업소의 사명과 임무를 일꾼들과 로동계급에게 깊이 새겨주시고 하시고 그들이 1단계 개건공사에서 세운 위훈을 두고 비날론로동계급의 정신력은 살아있다는 뜻 깊은 평가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과 투정의 지양분으로 받들어안은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세기 60년대 세인을 경탄시키는 《비날론속도》를 창조하였던 그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개건전투장마다에서 무한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것은 조선로동계급의 당력과 배양을 지니고 전반적인 비날론생산공정의 개건공사를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3년전 삼복철강행군길에서 자기의 의지를 불러일으켜 공장건설을 다그쳐 갈대만처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업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비날론속도》가 창조되는 속에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일떠섬 비날론 공장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끊임없이 진행될 능력화공정사를 통해 나라의 대규모화학공업기지로 전변되게 되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잠재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대국을 일떠섬에 필수적인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로고가 어려있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

급의 총결사전이 벌어졌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설계도를 들어와 추운 날씨조건에서도 총돌격전을 돌리며 힘이 많이 드는 새 형의 대형보일러설비제작과 설치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2단계 개건공사의 완공과 함께 비날론공정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고싶은 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총정의 열도는 시운전의 나날에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 촉매, 팽동공정의 시운전을 성공시킨 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비날론생산공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화학반응공정인 초산비닐합성공정의 시운전에 한사랄같이 펼쳐나섰다.

중앙과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유능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대동합체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힘껏 펴내어주는 총공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공업기술연구소의 기술자들과 합성직장의 일꾼들과 기능공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에 새기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거의나 생산을 한 시운전의 길을 하나하나 헤쳐나갔다. 거둔다는 시운전에 실재가 뒤따랐지만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달리는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의 총정의 마음을 더욱 분발시켰으며 그 뜨거운 애국열정의 마음은 그대어 지난 1월 하순에 초산비닐의 합성, 정류계통의 시운전의 성공과 함께 비날론생산공정을 위한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고야말았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기술개발의 나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 나라 화학공업부문에 처음으로 CNC화물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공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었다. 1단계 개건공사의 나날 알레히드, 초산, 가스제 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련합기업소에서는 2단계 개건대상들의 CNC화목표를 더욱 높이 세웠다.

기업소의 자동화부분 일꾼들과 기술자, 3대혁명조직원들은 발

에서 그물처럼 뻗어나갔다. 이렇듯 지난해말까지 전반적공정들에 대하고 현대적과학기술의 최첨단을 실현한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올해에 들어와 추운 날씨조건에서도 총돌격전을 돌리며 힘이 많이 드는 새 형의 대형보일러설비제작과 설치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2단계 개건공사의 완공과 함께 비날론공정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고싶은 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총정의 열도는 시운전의 나날에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 촉매, 팽동공정의 시운전을 성공시킨 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비날론생산공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화학반응공정인 초산비닐합성공정의 시운전에 한사랄같이 펼쳐나섰다.

중앙과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유능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대동합체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힘껏 펴내어주는 총공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공업기술연구소의 기술자들과 합성직장의 일꾼들과 기능공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에 새기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거의나 생산을 한 시운전의 길을 하나하나 헤쳐나갔다. 거둔다는 시운전에 실재가 뒤따랐지만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달리는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의 총정의 마음을 더욱 분발시켰으며 그 뜨거운 애국열정의 마음은 그대어 지난 1월 하순에 초산비닐의 합성, 정류계통의 시운전의 성공과 함께 비날론생산공정을 위한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고야말았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기술개발의 나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 나라 화학공업부문에 처음으로 CNC화물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공장

은 자기 땅에 불리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담대한 기상과 배짱을 지니고 현대적과학기술의 최첨단을 점령하는 초행걸에 주저없이 나섰을 것이다. 이들은 온도와 압력, 류량, 수위 등 화학반응공정에 수시로 변하는 지표들과 복잡한 장치들, 배관들로 이루어진 생산공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실리주의원칙에서 공정법에 따르는 CNC화의 목표를 내걸었다. 주체공업의 본보기공장의 CNC화는 마땅히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지닌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기술개건전투장에서 전투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수감요소들과 자동화장치들을 빠른 시일안에 설치하였으며 그에 따라 현장공정에 가장 알맞는 조종프로그램들을 개발 도입하였다.

비날론생산공을 위한 중요공정의 CNC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지난 시기에는 각 공정별로 따라 한개 벽면을 꼭 채우던 조종반들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온도와 압력, 류량 등을 손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에 새기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거의나 생산을 한 시운전의 길을 하나하나 헤쳐나갔다. 거둔다는 시운전에 실재가 뒤따랐지만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달리는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의 총정의 마음을 더욱 분발시켰으며 그 뜨거운 애국열정의 마음은 그대어 지난 1월 하순에 초산비닐의 합성, 정류계통의 시운전의 성공과 함께 비날론생산공정을 위한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고야말았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기술개발의 나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 나라 화학공업부문에 처음으로 CNC화물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공장

합성공정에서 CNC화를 위한 투쟁이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의 창시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명도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체의 기술력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여 주었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련합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은 우리 나라 화학공업분야에서의 일대 혁명으로 된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한것은 합성공정의 힘으로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련합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은 우리 나라 화학공업분야에서의 일대 혁명으로 된다.

소들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개건공사에서 제기되는 중요설비의 제작과 조립, 건축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해체하였다. 높은 날자리의 일꾼들과 너맹원들도 매일같이 건설공사장에 달려나와 건설자들의 일손도 돕고 경제선동의 북소리도 높이 울리며 애국헌신의 깨끗한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련합단위들에서도 비날론생산공정개건공사에 필요한 설비, 장치물들과 자재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대안중기련합기업소에서는 새 형의 대형보일러설비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하여 보내주었고 청진금속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설비, 장치물들을 제작하기 위한 전투를 기동성있게 벌려왔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 함흥청년기공정개건공사에 필요한 설비, 장치물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대화학공업기지의 현대화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내고 싶은 열망을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맹렬한강행군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2. 8비날론련합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 그리고 련합단위 로동계급의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것이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비날론로동계급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된 생산공정마다에서 비날론생산용 갖가지 화학제품들을 팡팡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한마음을 다짐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장전 65돌을 맞는 올해의 2월을 뜻깊게 장식하며 현대화된 대화학공업기지에서 비날론폭포가 쏟아진 소식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초선을 지켜 창조와 위훈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비쳐가고있는 전체 인민의 사기를 천재적으로 높여주고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땅 한 이터에서나 매일의 소리에 대한 신념과 락관,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을 더해주고있다.

특약기자 박동석
본사기자 리병춘

흥하는 내 나라의 자랑찬 현실, 강성대국이 눈앞에 보인다

주체 솜 생산 소식에 접한 각 계의 반향



얼마나 가슴벅찬 광경인가. 하얀 비날론솜을 가슴가득 품어안고 환희의 눈물, 승리의 만세를 부르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그들의 가슴에 퍼져버리는 환희와 격정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도 가득히 넘쳐난다.

어버이수령님, 비날론솜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얼마나 바라던 오늘날인가. 이날을 향하여 우리 얼마나 억세게 투쟁하였던가. 오늘날의 승리를 보다 큰 승리로 이어갈 맹세가 비날론로동계급의 심장을 펴벌 뚫는다.

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더욱 신심드높이, 힘차게 전진할 천만민국의 의지가 조선의 눈부신 비날론솜에 뜨겁게 비껴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을 지니고 강성대국의 미래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은 지금 세계를 경탄시키고있습니다.》

비날론솜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이 장쾌한 승리의 소식에 접한 우리 평양방직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크나큰 희열과 격정으로 세차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여, 질 좋은 비날론솜을 팡팡 생산하여 우리 직포공들에게 보내달라!

비날론로동계급의 위대한 정신력, 실천력을 본받아 비날론천을 폭포처럼 쏟아지도록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다 큰 기쁨을 드리고 당장전 65돌이 되는 뜻깊은 그날에는 동무들과 나란히 승리자로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어서겠다는것을 우리는 굳게 결의한다.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로병영웅 전 옥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여, 질 좋은 비날론솜을 팡팡 생산하여 우리 직포공들에게 보내달라!

비날론로동계급의 위대한 정신력, 실천력을 본받아 비날론천을 폭포처럼 쏟아지도록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다 큰 기쁨을 드리고 당장전 65돌이 되는 뜻깊은 그날에는 동무들과 나란히 승리자로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어서겠다는것을 우리는 굳게 결의한다.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로병영웅 전 옥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만큼 좋은 인민은 없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만큼 우월한 사회제도도 없으며 우리 나라 현실만큼 보람차고 위대한 현실도 없습니다.》

김철의 호소에 제일먼저 통장훈으로 화답할데 온 나라 대경사를 안아온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고있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 올해투쟁의 승산이 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습니다.》

현대적인 대화학기지로 일떠섬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각종 화학제품들과 함께 질 좋은 비날론이 폭포처럼 쏟아지고있다는 격동적인 소식이 접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커다란 기쁨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비날론대항생선의 시작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승리로써 온 나라의 대경사로 된다.

우리 나라는 비날론공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으며 비날론은 우리의 주체적인 화학

공업의 대표적인 창조물의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이번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첨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비날론공정을 일떠섬으로써 우리 비날론공장을 일떠섬으로써 목화솜이나 양털에 못지 않는 훌륭한 방직원료인 비날론의 대량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질 좋은 비날론옷감을 더 많이 보내줄수 있게 된 것은 일찌기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우리 식의 비날론공업을 창시하시고 개척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명도업적을 높이 받들고 추호고수한 불멸의 위훈으로 되며 계급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책을 산산이 짓부서버리고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연 일대 사변이다.

지금 우리의 천만민군은

많은 공장, 기업소로동계급은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각종 화학제품들로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더 많은 제품들을 팡팡 생산할수 있게 된 기쁨에 넘쳐서 새로운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혁명농장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근로자들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성진기계련합기업소, 북장화학련합기업소, 평안남도기계 4대선행부문의 각지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 그리고 온 나라 인민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현실로 꽃피운 2. 8비날론련합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처럼 말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박동석
본사기자 리병춘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여, 질 좋은 비날론솜을 팡팡 생산하여 우리 직포공들에게 보내달라!

비날론로동계급의 위대한 정신력, 실천력을 본받아 비날론천을 폭포처럼 쏟아지도록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다 큰 기쁨을 드리고 당장전 65돌이 되는 뜻깊은 그날에는 동무들과 나란히 승리자로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어서겠다는것을 우리는 굳게 결의한다.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로병영웅 전 옥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여, 질 좋은 비날론솜을 팡팡 생산하여 우리 직포공들에게 보내달라!

비날론로동계급의 위대한 정신력, 실천력을 본받아 비날론천을 폭포처럼 쏟아지도록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다 큰 기쁨을 드리고 당장전 65돌이 되는 뜻깊은 그날에는 동무들과 나란히 승리자로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어서겠다는것을 우리는 굳게 결의한다.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로병영웅 전 옥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여, 질 좋은 비날론솜을 팡팡 생산하여 우리 직포공들에게 보내달라!

비날론로동계급의 위대한 정신력, 실천력을 본받아 비날론천을 폭포처럼 쏟아지도록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다 큰 기쁨을 드리고 당장전 65돌이 되는 뜻깊은 그날에는 동무들과 나란히 승리자로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어서겠다는것을 우리는 굳게 결의한다.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로병영웅 전 옥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여, 질 좋은 비날론솜을 팡팡 생산하여 우리 직포공들에게 보내달라!

비날론로동계급의 위대한 정신력, 실천력을 본받아 비날론천을 폭포처럼 쏟아지도록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다 큰 기쁨을 드리고 당장전 65돌이 되는 뜻깊은 그날에는 동무들과 나란히 승리자로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어서겠다는것을 우리는 굳게 결의한다.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로병영웅 전 옥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여, 질 좋은 비날론솜을 팡팡 생산하여 우리 직포공들에게 보내달라!

비날론로동계급의 위대한 정신력, 실천력을 본받아 비날론천을 폭포처럼 쏟아지도록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다 큰 기쁨을 드리고 당장전 65돌이 되는 뜻깊은 그날에는 동무들과 나란히 승리자로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어서겠다는것을 우리는 굳게 결의한다.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로병영웅 전 옥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여, 질 좋은 비날론솜을 팡팡 생산하여 우리 직포공들에게 보내달라!

비날론로동계급의 위대한 정신력, 실천력을 본받아 비날론천을 폭포처럼 쏟아지도록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다 큰 기쁨을 드리고 당장전 65돌이 되는 뜻깊은 그날에는 동무들과 나란히 승리자로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어서겠다는것을 우리는 굳게 결의한다.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로병영웅 전 옥화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여, 질 좋은 비날론솜을 팡팡 생산하여 우리 직포공들에게 보내달라!

비날론로동계급의 위대한 정신력, 실천력을 본받아 비날론천을 폭포처럼 쏟아지도록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다 큰 기쁨을 드리고 당장전 65돌이 되는 뜻깊은 그날에는 동무들과 나란히 승리자로 10월의 대추전장에 들어서겠다는것을 우리는 굳게 결의한다.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로병영웅 전 옥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경축모임 근로단체들에서 진행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한 경축모임이 근로단체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관계부서 일군들, 직맹, 농공맹, 녀맹일군들, 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김병팔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남동청년화학생업소 직맹위원장 장용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에서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세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한 경축모임을 개최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명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불

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전설적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찬란한 미래를 기약한 민족의 대운이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밝은 전도를 열어놓은 세계사적사건이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발전 풍부화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존엄을 만천하에 떨치시였으며 이 땅위에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전념의 새 역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지난해말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오신 새해전두의 불길은 지펴주시고 올해 정초부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따라 각지 근로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성강의 본대, 성강의 투쟁기풍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한경호 농업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농공맹위원장 허덕복,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황윤남,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농장원 서금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과 농업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로 우리 당과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지시였으며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밑에 최건년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놀라운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성과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올해의 총진군에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들이 농업근로자들과 농업원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사상과 위대한 구상을 꽃피우는 수령결사옹위의 진위투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여러가지 대중운

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모두가 알곡증산투쟁에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로성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모란봉구역녀맹위원장 류영옥, 서성구역 중신동 초급녀맹위원장 홍국선, 만경대구역 광복2동 녀맹원 김광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족 최대의 경사로운 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녀성들의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고 가장 절충한 정치원로, 불세출의 명장으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통일변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근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업적을 김일성민족의 가장 고귀한 재부로 간직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 녀성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경공과 농업, 인민경제 선봉부문에 대한 지원업무를 통해 크게 벌리고 건설장소에서 녀맹동원대활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기있게 전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원근미풍을 높이 발양하고 아들딸들을 시대의 영웅들로 훌륭히 키우며 사회주의신경터, 선경마을을 꾸리는데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각급 녀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모든 녀맹원들이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기여하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16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2.16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이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전람회장에는 지난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지고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화한한 현실을 펼쳐주시는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선군혁명적과 천만민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주는 200여점의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안동문화회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열린 중앙사진전람회는 우리 근대와 인민에게 최대의 정치원로이시며 결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위대한 생활력과 부강조국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반영한 사진들을 통해

여 강성대국선로의 승전고가를 올려달라 그날이 다가오고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 《연사지구 혁명전적지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사진들은 인민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주제로 혁명적투쟁모습과 그 과정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반영한 《주체철에 의한 선진적 제강법을 완성한 성강의 로동계급》, 《선군시대 거창한 창조물로 일떠선 녀성발전소》, 《대고조의 열풍 휘몰아치는 단천제련소》 등의 사진들이었다.

전람회장에는 조국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 《최발발전소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 등의 사진들에 곁들여 있었다.

《사리원시 미곡혁명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사진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절세위인의 로고를 전하고있다.

위대한 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영웅적투쟁모습과 그 과정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반영한 《주체철에 의한 선진적 제강법을 완성한 성강의 로동계급》, 《선군시대 거창한 창조물로 일떠선 녀성발전소》, 《대고조의 열풍 휘몰아치는 단천제련소》 등의 사진들이었다.

전람회장에는 조국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열렸다. 개막식이 10일 청춘거리 체육경기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관계부서 일군들, 체육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모든 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완강한 투지와 평시에 연달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민족 최대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선군조선의 특기할 혁명적대고사로 빛내이

기 위한 총공세를 드세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는 우리 인민과 체육인들의 뜨거운 충정을 의거 경기대회가 해마다 의의있게 진행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완강한 투지와 평시에 연달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민족 최대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선군조선의 특기할 혁명적대고사로 빛내이

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드리는 노매》가 주악되는 속에 경기대회기발이 개막되었다.

토론들에 이어 선수들의 분열행진이 있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기관차체육단과 김책공업종합대학체육단 사이의 남자농구경기가 있었다. 대회기간 평양과 삼지연에서는 홍구, 배구, 탁구, 빙상호케이, 스키를 비롯한 8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공연

출연자들은 남성 3장과 합창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제담과 노래 《우리 민족 제일일세》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전설적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백두에서 개척된 조국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위업을 만반에 펼쳐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으며 그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

제 3차 전국소묘축전 개막

2.16경축 제3차 전국소묘축전이 개막되었다.

전문가, 비전문가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평양과 지방의 소묘전시회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8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10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식이 있었다. 관계부서 일군들, 미술창작가들과 애호가들, 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안동문화회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주체미술발전과 우리 인민의 문화적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소묘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인민대중을 참다운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산 3대 장군의

제 15차 《백두산상》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폐막

지난 1월 21일에 개막되었던 2.16경축 제15차 《백두산상》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 집단주의정신 그리고 평시에 연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앞장서고있는 데고 조시대 지휘성원의 품도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4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대회에서는 11개 종목들 놓고 승부를 겨루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10일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외무성에서 유럽나라 대사관성원들과의 친선모임 마련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외무성에서 9일 주조 유럽나라 대사관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유럽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궁성총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재미동포들 경축공연 진행

재미동포인리터트윈은 《민족통신》에 의하면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미동포들이 6일 미국의 뉴욕에서 《2월의 봄 경축공연》을 진행하였다.

재미동포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성원들과 여러 나라 외교관들, 외국인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편원형 연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동지의 노래》, 《천애에는 지도자동지의 안명은 우리의 행복》, 녀맹원들의 열렬한 찬양을 담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그보다 정다운 품 나는 물라라》, 교향곡 《경애를 받으시라》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세상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제 3차 전국소묘축전 개막

2.16경축 제3차 전국소묘축전이 개막되었다.

전문가, 비전문가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평양과 지방의 소묘전시회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8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10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식이 있었다. 관계부서 일군들, 미술창작가들과 애호가들, 시내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안동문화회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주체미술발전과 우리 인민의 문화적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소묘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인민대중을 참다운 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산 3대 장군의

제 15차 《백두산상》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폐막

지난 1월 21일에 개막되었던 2.16경축 제15차 《백두산상》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 집단주의정신 그리고 평시에 연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앞장서고있는 데고 조시대 지휘성원의 품도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4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대회에서는 11개 종목들 놓고 승부를 겨루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10일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주조 무관단을 위한 영화감상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방위력



